



가 정 통 신 문

(우) 576-802 김제시 중앙로 193
<http://www.gimjeongo.hs.kr/> ☎ 544-2512

◆ 교 훈 ◆
지 성
정 숙
협 동

제 40회 장애인의 날

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, 장애인의 재활 의지를 높이기 위하여
매년 4월 20일을 ‘장애인의 날’로 지정하였습니다.

‘**평등**’과 ‘**공평**’, 그리고 **배리어 프리 (Barrier Free)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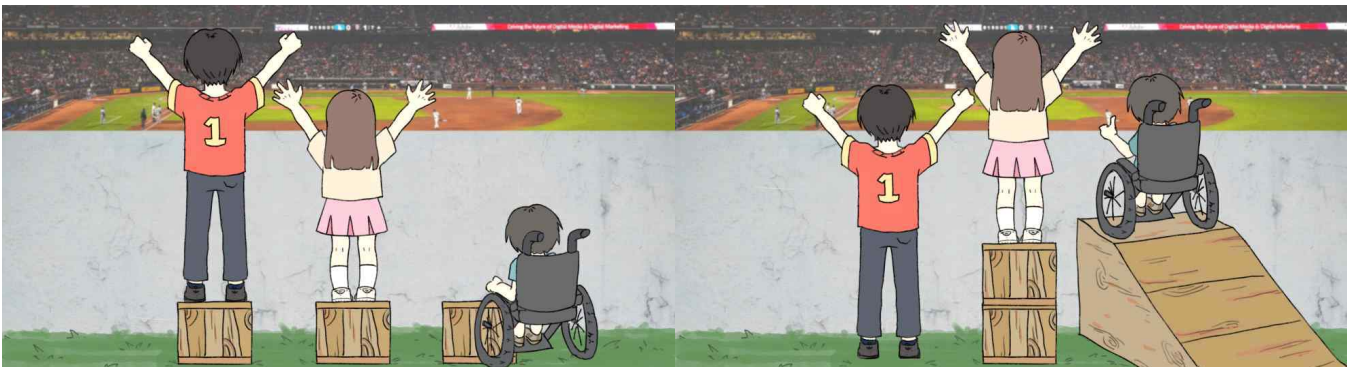
모두 함께 야구 관람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



평등! 누구나 똑같이 평등하게 한 상자씩 나누기

공평! 키가 작은 사람에게 더 많은 상자를 주기

그렇다면, 휠체어를 탄 지체장애인의 입장에서 한 번 생각해 봅시다.



휠체어를 타고 있는 지체장애인은
상자위에 올라갈 기회조차 가질 수 없습니다.

하지만, **경사로**가 제공된다면
모두가 **자유**롭게 야구 관람을 할 수 있습니다.

배리어 프리(Barrier Free)

‘장벽없는 건축설계(BARRIER DESIGN)’에 관한 보고서에서 유래한 말로, 장애인들도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물리적·제도적 장벽을 허물자는 개념입니다. 오늘날에는 건축 시설물의 변화뿐만 아니라 문화와 예술 분야로 적용·확장되어 모든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.

Barrier(장벽) + Free(자유로운, 없음) = 장애인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장벽을 허물자! 는 의미

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벽을 허물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배리어프리 사례



배리어프리 영화
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화면해설
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글자막



보행 장애물이 없는
무장애 버스정류장



보행약자를 위한 등산로
'자락길'

일상 속 숨어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



우리나라의 모든 캔 음료와 맥주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배려의 점자가 표기되어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음료의 이름들이 단순히 <음료>라고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은 어떤 종류의 음료인지 알 수 없습니다. 앞으로는 각 음료의 이름들도 점자로 표시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도 캔 음료를 마시기 전, 손끝으로 배려의 동그라미를 한 번 느껴보세요!

2020. 4. 17.

김제여자고등학교장(직인생략)